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구술을 통해 본 특수교육\*

박기동\*\*

강원대학교

곽낙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윤대중\*\*\*\*

우석대학교

---

###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삶을 구술을 통해 조명하는 것이다. 구술 참여자는 이흥구, 최경식, 이해곤, 최광근, 백재환 등의 5명이다. 이들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발전하는 과정과 국제대회의 활동 그리고 각 협회와 정부, 국민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일반인 또는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참여자들은 각자의 삶에서 큰 고통과 함께 장애가 발생했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흥구는 양궁, 최경식과 이해곤은 탁구, 최광근은 유도, 백재환은 사격의 운동종목을 만나게 되었다. 둘째, 구술참여자 5명이 그들의 삶에서 만난 양궁, 탁구, 유도, 사격 등의 운동 종목은 인생을 변화시켰으며 스스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대회에 출전하였다. 셋째, 각 종목의 협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장애인체육회의 출범과 함께 관심이 향상되고 있다. 한국체육의 발전은 일반 선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장애인 선수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주제어 : 장애인국가대표, 패럴림픽,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일반운동선수

---

\* 이 연구는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과제번호-520170226).

\*\* 제 1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djyun71@naver.co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60년 로마에서 23개국 40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시작된 패럴림픽은 2016년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15회 2016리우패럴림픽대회가 있었다. 한국은 11개 종목 139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종합 성적 20위(금메달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17개)의 성적을 올렸다. 비장애인들의 올림픽에 관심이 있던 대다수 국민과 정부는 리우올림픽 한국대표 선수단의 성적에만 집중하였으나 이어서 열린 리우패럴림픽 한국대표 선수단의 성적에는 관심이 멀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스포츠강국이라고 자평하기에 앞서 스스로 한국 스포츠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국가대표의 삶을 조명하는 것은 한국 스포츠의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과 방법이 있으며 그 가운데 비장애인 선수들의 활동과 장애인 선수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역사화 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장애인 국가대표의 삶을 통하여 장애인 체육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연구 영역의 확장과 관점의 다양화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패럴림픽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학위논문 18편과 학술지 연구물 41편이 있으며 대부분 경기력 향상과 정부의 지원체계, 스포츠 상해, 기사 동향 분석, 정책방향 등의 연구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성격과 유사한 연구물로는 장성범·하용용(2017)의 「남다른 한 장애체육인의 삶: 패럴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정금종의 삶」과 이기호(2008)의 「국가대표 장애인 양궁선수의 운동과 삶」의 연구물로 두 편에 불과하다. 두 편의 선행연구는 각각 역도와 양궁의 종목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탁구, 양궁, 유도, 사격 장애인 국가대표의 삶을 조명하는 것은 과거 장애인 국가대표의 현실을 알아보고자 함이며 동시에 종목별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걸어온 길을 미시적으로 확인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경쟁상대와 겨루는 과정과 승리의 기쁨을 찾아내는 과정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2015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2017년 우석대학교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의 구술채록사업에서 이용된 구술 참여자의 기록을 토대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구술자료이용·공개동의서>를 비롯한 각종 서식을 작성한 후 2시간씩 세 차례에 걸쳐서 심층면담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현황

참여자	연령	주요경력	종목	현재활동	장애등급
이홍구	54세	패럴림픽 3회 출전	양궁	대전시 양궁실업팀 감독	지체장애 1급
최경식	52세	패럴림픽 3회 출전	탁구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경기이사	지체장애 1급
이해곤	65세	패럴림픽 6회 출전	탁구	협회고문	지체장애 1급
최광근	31세	패럴림픽 2회 출전	유도	양평군청 선수	시력장애 2급
백재환	63세	패럴림픽 1회 출전	사격	협회고문	소아마비 1급

## 2. 연구문제

연구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참여자들이 장애를 갖게 되는 과정은 무엇인가?
- 둘째,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난 종목의 특성은 무엇인가?
- 셋째, 장애인 국가대표로 활동한 과거는 어떠했나?

## II. 연구방법

이 연구의 방법은 질적연구 분야의 구술사연구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기억을 반구조화된 질문을 토대로 심층면담을 통한 구술채록한 후 전사(傳寫)작업을 통하여 텍스트화하여 자료를 생산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자료는 연구윤리 차원에서 참여자에게 검독을 요청하여 참여자의 기억이 온전히 복원되었는지를 확인하였고 동시에 연구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참여자 검독과정을 마친 자료는 스프레들리의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 방법과 윤택림의 맥락분석 방법을 동원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부족한 자료는 각종 문헌을 활용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

## III. 한국 장애인 국가대표의 활동

장애인올림픽인 패럴림픽은 1960년 로마에서 23개국, 400명 규모로 치러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68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된

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1호)

제3회 패럴림픽 대회에 선수 6명, 임원 4명이 참가하였다. 4년 후인 1972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회에서는 금메달 4, 은메달 2, 동메달 1개로 종합 16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제8회 서울패럴림픽 대회에 62개국 4,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성적인 금메달 40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19개로 종합 7위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제24회 88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하계올림픽이 치러진 나라의 시설과 장소에서 장애인올림픽이 바로 개최되었으며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역대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대표팀의 성적을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한국대표팀의 장애인올림픽 성적

대회명	개최년도	개최국(도시)	대한민국 종합순위
제1회 로마장애인올림픽대회 (23개국, 400명 참가)	1960년	이탈리아 로마	비참가
제2회 동경장애인올림픽대회 (22개국, 390명 참가)	1964년	일본 도쿄	비참가
제3회 텔아비브장애인올림픽대회 (29개국, 1,100명 참가)	1968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처음 참가 (선수 6명, 임원 4명)
제4회 하이델베르크장애인올림픽대회 (44개국, 1,400명 참가)	1972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16위 (금 4, 은 2, 동 1)
제5회 토론토장애인올림픽대회 (42개국, 2,700명 참가)	1976년	캐나다 토론토	27위 (금 1, 은 2, 동 1)
제6회 안헴장애인올림픽대회 (42개국, 2,500명 참가)	1980년	네델란드 안헴	26위 (금 2, 은 2, 동 1)
제7회 스톡홀랜드빌&뉴욕 장애인올림픽대회 (뉴욕 45개국 2,500명, 에일즈버리 41개국 1,422명 참가)	1984년	미국(뉴욕) 영국(에일즈버리)	37위 (미국 뉴욕 : 동 1 영국 에일즈버리 : 은 2, 동 1)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61개국, 4,200명 참가)	1988년	한국 서울	7위 (금 40, 은 35, 동 19)
제9회 바르셀로나장애인올림픽대회 (86개국, 4,273명 참가)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12위 (금 11, 은 15, 동 18)
제10회 애틀란타장애인올림픽대회 (115개국, 4,750명 참가)	1996년	미국 애틀란타	12위 (금 13, 은 2, 동 15)
제11회 시드니장애인올림픽대회 (123개국, 6,032명 참가)	2000년	호주 시드니	9위 (금 18, 은 7, 동 7)
제12회 아테네장애인올림픽대회 (136개국, 6,032명 참가)	2004년	그리스 아테네	16위 (금 11, 은 11, 동 6)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 (140개국, 7,000명 참가)	2008년	중국 베이징	13위 (금 10, 은 8, 동 13)
제14회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164개국, 7,036명 참가)	2012년	영국 런던	12위 (금 9, 은 9, 동 9)
제15회 리우자네이루장애인올림픽대회 (161개국, 선수 4,300명 참가)	2016년	브라질 리우자네이루	20위 (금 6, 은 9, 동 15)

위의 <표 2>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패럴림픽에 참가한 것은 1965년부터이다. 비장애인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은 2005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신설 2009년 이천 훈련원 개원되기 전부터 패럴림픽에 참가했다. 그 당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명분은 선수의 훈련과 거리가 먼 재활운동 차원에서 접근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활동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 IV. 장애의 과정과 각 종목의 만남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sup>1)</sup>에서 장애인의 90%는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장애를 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도 비장애인으로 삶을 살다가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를 얻게 되었다.

##### 1. 이홍구 선수의 사례

양궁국가대표로 활동한 이홍구 선수는 군대를 제대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재활을 위해서 선택한 양궁이 그를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가 양궁을 처음으로 접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처음에 제가 87년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9월 달에 입원하게 됐고요, 91년도 까지 밖에 한 발짝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칩거를 하다가 91년도에 갑자기 밖에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게 됐는데 세상에 휠체어 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죠, 저는 저 혼자만 세상에서 휠체어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일먼저 재활을 하기는 농구가 괜찮다고 해서 동료들하고 처음에 농구를 시작했었는데 다친 부위가 흉추 부위라 휠체어를 타고 막 과격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친구가 병천고등학교 교사로 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병천고등학교에 양궁이 있는데 양궁을 한 번 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한 번 해 보자"

1) 중부일보 4월 13일자 보도자료. 한국장애인식교육센터(www.aulim.org),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http://news.joins.com/article/14436294>).

## 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1호)

해가지고 대전에서 병천을 갔지요, 갔더니 그쪽 감독님하고 코치 분들이 또 흔쾌히 받아 줘가지고 처음 그렇게 접하게 됐어요, (2017년 7월 26일 참여자 구술)

위의 2017년 7월 26일 구술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흥구 선수가 교통사고 이후 장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참여자는 집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밖으로 나가면서 그 전에 몰랐던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양궁은 자신의 부상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처음에는 국가대표라는 거창한 꿈보다는 단지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자하는 참여자의 의지가 대전에서 병천까지 이동하여 양궁을 배우게 되었다. 반복되는 활쏘기의 체험은 심리적으로 참여자의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습은 참여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최경식 선수의 사례

한편 탁구 국가대표로 활동한 최경식은 1986년 군 복무 도중 차량 전복 사고로 인한 장애를 갖게 되었고 탁구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와 본격적으로 선수활동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전라도 김제에 있는 방공포병에 제가 자대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수송대에 근무하다가 차량전복사고가 났는데 8개월 정도 했는데...(중략)...제가 1988년도에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다치고 88년도, 88장애인을림픽을 보고 그때 외국선수가 휠체어를 타고 탁구 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때 제가 보석 가공이라는 그런 기술을 연마하고 있을 때인데 그 화면을 보고 제가 제 무릎을 치면서 '어 내가 도전할 것은 저거구나!' 그때 88장애인패럴림픽 외국 선수의 휠체어 타고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쉽게 말하면 제가 거기에 꽂혀 버린 거죠, 89년도에 (보석 가공)훈련을 졸업하고 대구에 보니까 휠체어 탁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제가 대구에서 휠체어 탁구 1호인데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가 탁구를 칠만한 그런 환경들이 지금보다 어려웠습니다, 지도자는 없었으니까 그때 일반 탁구라든가 지도하는 것을 잘 몰랐고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하면 스탠딩, 휠체어 선수지만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 서있는 장애인들을 스탠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탠딩하고 휠체어가 있는데 휠체어는 제가 처음이지만 스탠딩은 대구에서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도를 받게 된 거죠, (2017년 7월 28일 참여자 구술)

위의 2017년 7월 28일자 구술 내용을 통해 최경식 선수는 군복무를 하면서 차량전복 사고에 의해서 요추를 다치게 된 참여자는 삶을 위해서 보석 가공기술을 배우기 위한 훈련원에 입소하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 과정에서 텔레비전을 통하여 서울패럴림픽을 보게 되었고 휠체어를 타고 탁구를 치는 외국 선수의 모습에 반하게 되었다. 훈련소를 수료한 참여자는 고향에서 탁구를 배우기 위하여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았지만 그곳에서 휠체어 선수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지도해주는 지도자는 없었다.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했던 참여자는 임시방편으로 자신과 함께 보석가공훈련원에서 생활했던 선배를 파트너 선수를 만들었고, 장애인스탠딩선수들에게 각종 기술을 배우게 되면서 탁구에 대한 열정을 키우게 되었다.

### 3. 이해곤 선수의 사례

이 연구의 참여자 가운데 패럴림픽에 가장 많이 참가한 이해곤 선수는 해병대<sup>2)</sup>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훈련을 받던 가운데 부상을 입게 되었다. 전신이 마비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보훈병원에서 생활한 참여자는 우연치 않은 기회에 탁구를 접하게 된다. 그 과정에 대해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병원에서) 6년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햇빛이 보고 싶어서 너무 얼굴이 창백하고 하여니까 잔디밭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모우숙<sup>3)</sup> 선생님이 오시더라고 한국말을 잘 하는데 이름이 뭐냐, 왜 그랬느냐 몸이 얼마나 불편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죠, 군대에서 다치고 목을 다쳐가지고 사지가 마비되었다, 손 다리도 못하고 소 대변도 못 가리고 남의 손에, 남이 해주지 않으면 못 산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분이 "일주일에서 세 번 이해곤이한테 올 테니까 한 번 재활치료 받아 보겠냐?" 고 그러더라고 재활치료도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재활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저를 도와주시겠냐?" 고 하니깐 "도와주겠다," 고 하더라고 "내가 한 번 도와주겠다," 그러고 그분이 정말 한 달 정도 있다가 월, 수, 금으로 오시더라고 올 때 마다 재활 할 수 있는 공도 가져오고 붕대도 가져와서 손을 이렇게 묶어서 탁구, 우리나라 탁구 라켓을 묶어서 쥐어보기도 하고 물리치료실에서 이렇게 구르는 거 시키더라고, 처음에는 하기 싫어 가지고 그 분이 올 때,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병실로 오셔가지고 "내가 일주일 있다가 일본에 가는데 거기에서 탁구 라켓

2) 군과 관련된 내용은 민감한 부분이며 공개를 거부하겠다는 참여자의 요청에 의하여 군복무 시절 부상으로만 표현함.

3) 미국인으로 연세대학교 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모우숙은 물리치료사였으며, 이해곤 선수와 자매 결연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8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1호)

하나 좋은 걸로 사오겠다, 내가 갖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탁구 한번 쳐 보겠냐?” 고 그래서 갖고 오시겠다고 하니깐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가져다 달라” 고 그 분이 한 달 있다가 오셨는데 탁구 버터플라이라고 일제 그 하나 하고 라바 그 일본제 갖고 오셨더라고 그걸로 한 번 운동 해 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선생님 보고 붙여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분이 월, 수, 금으로 오셔가지고 봉사실, 봉사실에 탁구대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맨날 끌어다 주시고 자기가 이렇게 쳐주시고 내가 치는데 처음에는 손이 무거웠어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탁구채를 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어느 날인가 치다보니까 몇 달을 하다보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근육이 힘이 생기고 조금 하겠더라고 그리고 재미도 있는 거야 (2017년 8월 24일 참여자 구술)

이해곤 선수는 위의 2017년 8월 24일 구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던 도중 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만기 전역을 한 후 다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병상에만 있던 참여자는 미국출신 선교사이며 교환교수로 연세대학교 병원 물리치료사로 온 모우숙 선생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의 권유로 탁구를 알게 되었고 신장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알게 된 모우숙은 헌신적으로 참여자의 탁구열정을 불태우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재활의 목적으로 탁구를 접한 참여자는 손과 허리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붙으면서 혼자서 앉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몸의 상태가 좋아졌다. 탁구로 인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생활이 많아졌다는 것은 실의에 빠졌던 참여자 스스로에게 활력소 되었으며 결국 탁구에 대한 흥미로 이어지게 되었다.

### 4. 최광근 선수의 사례

유도 선수로 활동한 최광근은 운동 중 부상을 입게 되었고 점점 시력을 잃게 되면서 장애인선수로 등록을 한 후 선수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 부상을 입고 현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때 전국체전에 강원도 대표로 선발 되서 출전하기 이틀전이었는데 선배랑 같이 훈련을 하는 도중에 선배의 손이 제 왼쪽 눈을 찔러서 갑자기 앞이 하얗게 안 보이더니 번개 치는 것 같이 반짝이더니 보이지 않았어요, ‘한두 시간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좋아지지 않아서 바로 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중략)...그때는 장애인 유도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였기도 한데 유도를 그만두기에는 늦은 시기여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길 밖에 없어서 선생님들이 자신감도 생기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기술적인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술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기 시합에서 동메달을 따고 전반기 마지막 시합이 하계중·고 연맹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한국체육대학교 장학생으로 스카우트가 와서 가게 되었죠,...(중략)...대학을 졸업 할 시점에 개인전 메달이 12개 정도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기술이 단조롭고 실업팀에서 깨리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에는 실업팀을 가지 못하고 코치로 양평에 있는 중학교에 가게 됐는데 때마침 한체대 교수님과 지인께서 "장애인선수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저한테 기회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장애인 선수 기준이 된다면 한번 뛰어보겠다," 해서 그해에 대학을 졸업하고 2월에 검사 기준에 합격하고 처음으로 등록하게 되었어요,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장애인 국가대표 선발전을 용인대학교에서 해서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발탁되었어요, (2017년 8월 9일 참여자 구술)

최광근 선수는 2017년 8월 9일 구술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유도부에서 생활하던 참여자는 강원도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훈련을 하던 중 눈을 다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참여자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눈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후 실의에 빠질 틈도 없이 지금까지 해오던 유도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선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결국 점점 떨어지는 시력을 갖고 비장애인선수들과 유도시합을 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전반기 중요한 시합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획득하면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게 되었다. 평소 성실하게 운동하는 참여자는 대학교 재학시절 12개의 개인 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실업팀으로 입단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력이 좋지 않다는 참여자에게 실업팀 입단을 제안하는 팀은 없었다. 결국 유도를 좋아했고 유도를 떠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참여자는 양평의 중학교에서 유도지도자로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도자 생활과 함께 선수로서도 활동하기로 마음먹고 실업연맹에 선수등록을 하고 활동하던 참여자에게 대학은사로부터 장애인선수등록과 관련된 제의를 받게 되었다. 장애인 선수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참여자는 떨어지는 시력과 좋아하는 유도를 생각하였고 결국 시각장애2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선수등록을 마친 후 선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5. 백재환 선수의 사례

서울패럴림픽에서 선수로 활동한 백재환 선수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일반 운동선수들과 약 15년 동안 함께 선수생활을 했다. 그가 어린 시절 전염병으로 인한 소아마비는 그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들었다. 참여자는 당시의 내용을 2017년 7월 27일자 구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저희 50년생들, 그 시절에는 예방주사가 없었어요, 그러가지고 그때 당시 인천 제가 화수동에서 기거 했었는데 그때 소아마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은 또래 친구하고 몇 사람이 이제 소아마비에 걸렸죠, 그중에 제가 제일 심하게 걸린 상황입니다, (2017년 7월 27일 참여자 구술)

위의 구술채록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이후 열악한 보건환경은 그 시대 많은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동네에 전염병이 돌았고 그로 인해서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으며 소아마비1급의 판정을 받고 평생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신력만큼은 비장애인들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유일하게 장애인인, 제가 1급 장애인인데 1급 장애인인 (비장애인)선수 생활한 첫 번째 케이스일거예요, 일반 선수생활 한 것이...(중략)...제가 일반 선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쪽에 오고 싶지가 않았죠, 일반 선수 생활을 86년도에 은퇴를 했을 거예요, 86년도 은퇴를 하고 88년도, 일반(선수로) 전국체전에 마지막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곧 바로 연맹 재무이사를 맡고 있었어요, 원래 임원과 선수는 병행할 수 없습니다, 88올림픽에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 패럴림픽이 처음으로 통합된 것이 88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 선수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찾아본 것이 이제 1호가 저였었던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그래서 굉장히 권유를 했는데 자존심 문제가 있죠, 차이가 많이 나죠, 일반 점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제가 (재무)이사로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요청을 안 받아들이다가 저를 첫 메달로 해 놓고, 프로그램을 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제가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한 4월 달에 장애인 대표 팀을 구성 했었다면 제가 6~7월에 늦게 합류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될 것, 이사직 정리해야 되고, 암만 장애인 선수였어도 선수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일반 선수등록, 그때는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어 있을 때 라 일반 선수등록을 해야 하는 입장이면 또 임원직을 내놓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고 늦게 합류하게 됐죠, (2017년 7월 27일 참여자 구술)

다음은 2017년 7월 27일 구술채록을 통해 추가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백재환 선수는 소아마비 1급의 장애등급을 갖고 있으면서 비장애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약 15년 동안 일반사격선수로 활동한 참여자는 1988년 서울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선수로 전향하여 선수등록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장애인사격선수로 전향하기까지는 상당한 심적 고통이 있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선수 생활을 한 참여자는 보이지 않는 편견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격을 그만두지 않았다. 항상 실력으로 편견을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그것은 전국대회에서 입상의 실력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사격계의 차별과 편파적인 모습은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서울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선수로 전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88서울패럴림픽에서 비장애인선수들보다 더 높은 점수로 메달을 획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각 참여자들은 비장애인으로 삶을 살면서 개인적인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되었고 장애를 당하면서 심리적인 충격이 심하여 외부와 스스로 차단하면서 마음의 벽을 만들게 되었다. 부상을 입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만들었던 마음의 벽 넘어가 궁금한 참여자들은 한걸음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그 수단으로 자신의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종목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우연(偶然)을 가장한 필연(必然)으로 참여자들의 삶속으로 들어왔다. 참여자들이 부상을 입는 과정과 장애를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들이 겪었던 힘들었던 과거의 생각을 담담한 이야기로 때로는 웃으면서 풀어내는 모습을 보는 연구자는 경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각 종목에서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상경험과 장애인식에 대해서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주었던 상처들, 즉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와 사회적 반감이 아닌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모습은 연구자로 하여금 새롭게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였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 V. 장애인 국가대표 생활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국민의 관심

엘리트체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대표 즉,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세계 무대에 오른다는 것은 엘리트체육을 하는 모든 선수들의 꿈과 희망일 것이다. 장애인 선수들은 또 하나 극복해야 할 과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며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세계무대에 오를 수 있는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 수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 모두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 하고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 1. 이홍구 선수의 생활

양궁국가대표의 이홍구 선수는 3번 패럴림픽에 출전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96년 애틀랜타 패럴림픽에 선발 되었으나 출전하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참여자는 1998년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고 바로 영국에서 열린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였으며 이듬해인 1999년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본격적인 국가대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오로지 1등만 살아남는다.’ 는 생각을 가지고 95년부터 양궁에 완전히 매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8년도에 국가대표가 처음으로 됐고 영국을 국제대회에 처음 나가게 됐죠, 그때가 1회 세계선수권대회였어요, 물론 거기에서 개인전 4등하고 단체전 4등 했어요,...(중략)...99년도에 일본에서 아시아선수권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1등을 했어요, (2017년 7월 26일 참여자 구술)

이홍구 선수는 2017년 7월 26일 구술채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1987년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장애 1급의 장애를 갖고 오랜 병상생활을 하면서 1992년 접하게 된 양궁은 1998년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세계무대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국가대표 생활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 양궁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국민적인 관심에 대하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장애인 쪽은 솔직히 숙소도 지하, 수영장 지하에서 했어요,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하는 건지 진짜 나는 상상을 못해요,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면 ‘그게 무슨 동물이지 사람이냐’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중략)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쪽은 그만큼 사람대접을 못 받았어요, 서울에 88곰두리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 수영장이 있는데 그 지하에다가 방을 해놓으니 이게 자고 일어나면 물이 흥건한 거야, 창고 같은데다가 침대 몇 개 넣어놓고 자라고 하니, 합숙을 그렇게 했어요...(중략)...이거는 밤에 샤워하러 갈 때 수영장 탈의실 옆에 딸린 샤워실 가보셨어요? 무서워서 못 가 전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혼자서는 샤워를 못해 여관은 적어도 방 옆에 있잖아요, 씻는 거부터 되잖아요, 이거는 샤워하러 가려면 휠체어를 타고 한참 뱅뱅 돌아서 가야 되니까 저녁에 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죠, 생활하기가 아테네 때는 서울 보훈병원에서 했는데 아~ 병원 정말 싫어요, 다쳐서 병원 가서 그 생고생하고 나왔는데 또 병원 가서 운동하려니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거라 병원은 뱀 냄새만 맡아도 넘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또 병원에서 합숙훈련을 하니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못해요, 베이징까지 그랬어요...(중략)... 진짜 지금 가서 하라고 하면 나는 죽어도 안 해, 그만큼 병원에 대한 노이로제가

(선수들이)다 있어요, 다친 사람들은 병원이 정말 싫거든요, 병원 냄새 있잖아요, 그거를 적어도 1년 이상 맡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늘이 꽃을 데가 없을 정도로 바늘을 맞아서 쳐다도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합숙훈련을 하니깐 너무 싫고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병원에서 좋은 거 갔다가 들이대도 안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2017년 7월 26일 참여자 구술)

위의 2017년 7월 26일 구술채록 내용을 통해 이흥구 선수는 2000년 시드니패럴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된 후 합숙훈련을 하던 곳은 수영장의 지하실로 침대와 매트리스를 가져다 놓은 임시 숙소로 습기와 불편한 생활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합숙훈련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장애를 갖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 없는 대목이다. 각 종목별로 합숙장소와 경기장을 선별하고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비를 보내는 것이 그동안 지원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세계대회에 출전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혀 확인 하지 않는 일방적인 지원체계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2004년 아테네패럴림픽과 2008년 베이징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합숙소는 서울 보훈병원으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의한 장애인 선수들이 갖고 있는 병원에 대한 심리적 괴로움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지원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 2. 최경식 선수의 생활

한편 탁구 국가대표로 활동한 최경식은 1987년 군대에서 차량전복사고에 의한 장애를 갖게 되었고 88서울패럴림픽을 본 후 탁구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후 1990년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서 탁구에 입문하게 된다. 탁구를 시작한 후 1993년 처음 국가대표에 선발되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93년도에 국가대표 선발 되면서 원래 옛날에는 각 지역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각 체급에 6명 씩 뽑습니다, 그 사람들을 뽑아서 플리그를 해서 두 명 정도를 국가대표로 뽑는데, 그 중에 선발이 돼서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나간 것은 베이징 아시안게임, 거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 (중략)... 94년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 처음 국가대표가 됐을 때 제가 88장애인패럴림픽을 보고 꿈을 두 가지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 금메달, 두 번째는 휠체어 탁구를 시작한 이상은 휠체어 탁구 세계 1인자가 되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93년도 국가대표가 되면서 기본은 다 이룬 것처럼 너무 좋았고 나한테는

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1호)

94년도 베이징 장애인 경기대회가 아시안게임이 너무 큰 의미가 아니냐? 탁구 중주 국이라는 중국을 가서 (시합을)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계기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7년 7월 28일 참여자 구술)

최경식 선수는 위의 2017년 7월 28일 구술 채록 내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1993년 최경식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이전인 1991년에 영국에서 열린 세계상해군경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한국상해군경체육회’ 대표로 영국에 다녀온 참여자는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 선수들에 의한 지도가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지도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열악한 환경과 장애를 인식하고 장애인에게 맞는 지도법으로 경기력을 향상시켜주는 지도자가 부재한 현실을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인 참여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탁구를 시작한지 3년 만에 국가대표로 선발 될 수 있었던 것은 스탠딩선수들의 맞춤 지도에 의한 것이었고 자신의 의지가 맞아떨어져서 결국 국가대표서 세계대회의 입상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장애인선수들에게 맞는 환경적인 부분과 장애인 선수들에게 맞는 지도법이 가미된다면 한국장애인체육의 미래는 기대해 볼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3. 이해곤 선수의 생활

1970년대 군대에서 훈련도중 발생한 부상으로 6년 동안 병상에만 있었고 교환교수로 한국에 찾아온 모우숙 선생을 만나면서 재활의 측면으로 시작한 탁구가 6번의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해곤선수의 국가대표 선발과 첫 국제 대회의 출전경험과 1980년대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85년도 갈 때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장애인 체육이 그렇게 활성화 될 때가 아니에요, 일반 장애인들은 거의 안 나오고 그런데 저희 상해용사들끼리만 하는 시합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영국 ISMG(척수장애인국제선수권대회) 거기에 출전하는 거예요, 상해용사들끼리만 서울 보훈병원에서 시합해가지고 각 체급별 1, 2, 3, 4, 5체급별로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 탁구하고 양궁하고 사격하고 그것만 있었어요, 세 가지만 한꺼번에 뭉치면 15명, 20명 그렇게 갔었습니다, 하이고 그때는 정말 열악해가지고 그때는 코치가 없었어요, 그냥 거기 서울 보훈병원에 체육교사가 하나 있었어요, 대학교 때 체육과를 나온 사람이 체육교사로 병원에 들어오면 다 맡아서 하는 거야 혼자서, 그리고 선발된 사람끼리 그냥 치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을 초청 하는 거야 고등학생

들이 같이 치고 그렇게 한 달인가 그렇게 연습하고 나갔어요. …(중략)…보통 오전에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이렇게 짜 놓고 잡자는 것도 숙소가 조그마하니까 숙소라기보다도 당구 치던데 당구장, 뭐 수영장을 치워 버리고 병실에서 침대를 옮겨다가 깔아 놓고 자게하고 막 모기도 많고요, 말도 못해요 더워가지고 에어컨은 없잖아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밤새 잤어요, 모기향 피워 놓고 옛날에는 파란 거 모기향 있잖아요,…(중략)…우리가 88올림픽 때 메달을 많이 땀어요, 경기장에서 시합을 할 때도 국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을 시킨 거예요, 그 당시 '담다디' 노래를 불렀던 이상은 인가 가수, 그 노래를 경기장 마다 틀어주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따라 부르면서 꺽꺽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학교에서 동원이예요,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에 관심이 없으니까…(중략)…저희들 선배 분들은 그때 당시는 김포공항이거든요, 공항에서 카퍼레이드를 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없었어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보훈처에서 보훈처장이 훈장, 총무처에 올리면 훈장 나오고 뭐 그런 거지 그때 백마장을 주시더라고 제가 백마장에다가 포상금 30만원 그렇게 받았어요. (2017년 8월 24일 참여자 구술)

이해곤 선수는 위의 2017년 8월 24일 구술채록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해곤 선수는 1985년 영국에서 열린 척수장애인국제선수권대회에 출전하면서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다. 당시는 일반 장애인선수들은 없었으며 상해용사 장애인선수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서울 보훈병원에서 각 체급별 선수들을 선발했고 종목으로는 사격과, 양궁, 탁구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하여 영국으로 출전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처에서 지원했으며 열악한 훈련환경과 숙소는 참여자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88서울패럴림픽 당시 관중을 동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명가수를 섭외하고 학생들을 동원하여 경기장 관중을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훈장을 추서함과 동시에 포상금을 주면서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보훈처의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 이 당시 장애인국가대표 선수의 선발과 합숙, 격려의 과정을 담당할 정부기관은 보훈처와 보건복지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엘리트체육지원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가 아닌 상행군경의 지원과 복지를 담당하는 보훈처와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였다는 것이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으나 2005년 장애인 관련 체육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장애인체육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울러 2008년 베이징패럴림픽을 계기로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일반선수들과 동일하게 지급되기로 법적절차를 마치게 되었지만 집행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 4. 최광근 선수의 생활

유도 선수로 활동한 최광근 선수는 유도 훈련도중 시력손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고 이후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 시각장애관정을 받고 장애인선수로 전향하여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다. 그가 국가대표선수로 생활한 내용과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 스타일이 잡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에게 조금 편했고 상대들이 저 같은 스타일을 만나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우승 하게 되었어요. 비장애인 유도를 해서 장애인 유도를 하는데 체력적, 기술적 또 유도 능력에서 장점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 체중조절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각적으로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몸을 써서 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돼서 고등학교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허리후리기' 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몸 힘이 남들보다 세다고 제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아치기' 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개발하게 되었어요... (중략)...장애인 세계선수권을 우승하고 나서 양평군청에서 관심을 갖고, 양평군청이 창단 시기거든요, 창단멤버여서 운이 좋게 세계선수권이 4월에 끝나고 6월 1일자로 군청에 입단하게 되었어요... (중략)...양평군청에서 카퍼레이드를 해주셨고 그렇게 환영을 많이 받았고 청와대 만찬이 있었고 그 두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금이 그 다음달부터 100만원씩 지급됐던 걸로 기억해요... (중략)...리우패럴림픽도 런던패럴림픽과 마찬가지로 랭킹 점수가 부여된 대회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어야 출전을 할 수 있었고 국내 선발전을 거쳐서 저는 쿼터 포인트를 획득해서 출전을 하게 되었어요. (2017년 8월 9일 참여자 구술)

최광근 선수는 2017년 8월 9일자 구술채록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런던패럴림픽과 리우패럴림픽 2연패를 달성한 최광근 선수는 국내 국가대표 선발전을 두 번 실시한 후 선발되고 국제 대회에서 입상하여 세계랭킹을 유지하고 있어서 국제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졌다. 비장애인유도선수로 활동한 경험이 장애인유도선수로 활동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참여자는 런던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4년 뒤 브라질리우패럴림픽에서 같은 체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과거 장애인선수들의 지원보다 향상된 지원을 받은 참여자는 새벽부터 시작된 운동이 야간운동으로 마무리 되는 시간까지 자신과의 싸움을 극복하면서 동경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과거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한 참여자들이 말하는 정부의 지원체계보다 한걸음 발전한 모습이 보인다. 그것은 연금과 훈련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이천훈련원이 개원하면서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의 합숙훈련은 이곳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2008년

베이징패럴림픽 후 엘리트체육선수의 연금지원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와 비장애인국가대표선수의 지원체계가 일원화 되어 2012년 런던패럴림픽 선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 5. 백재환 선수의 생활

서울패럴림픽에서 국가대표 사격 선수로 출전한 백재환 선수는 약 10년 동안 비장애인 선수로 활동했다. 그러나 전국체전에만 출전할 수 있었으나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출전할 수 없었다. 그 당시를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전국체전은 10년 정도 나갔으니까, 일반 전국체전, 그때 인천 대표로만 나갔죠, 국제 대회도 일반대회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약간 편견 때문에 굉장히 심했죠, 근데 그것이 내가 생업도 아니고, 어떤 취미, 근데 좌절도 많이 했죠, 대표 팀이 될 수가 없었으니까, 또 총하면 역시 육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육군을 중심으로 해병대 팀이 중심이었고, 금융단 팀들도 아무래도 좀 쳐졌습니다, 중심이 육군이었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흔적도 없는 사람 중 하나 아닙니까, 행정적이거나 이런 곳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죠,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나중에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각 은행 팀이나 육군 팀, 해병대 팀에 감독이나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야, 재환아 나 그때 너 그렇게 배재하려고 그런 것 아니다," (하하하) 지금에 와서 만나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굉장히 그 분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17년 7월 27일 참여자 구술)

위의 2017년 7월 27일 구술 채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불이익과 편견에 맞서 생활했던 참여자는 서울패럴림픽에서 장애인 국가대표 사격선수로 출전하게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국가대표 선발이 기쁜 마음에 출전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 받아왔던 차별에 대한 반감이 강한 상태에서 출전하게 된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정말 참석해야 하나 하는 갈등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왕 참석하면 세계 최고, 일반인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복수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을 다 이기고 싶었어요, 점수로 이기고 싶었는데 훈련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숙소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안 좋았고, 야전 침대에서 저희들이 자면서 훈련장도 태릉에서 못했습니다, 적립회관에 임시 사격장을 해서 연습을 했고, 그때 당시 생각하면 너무나 좀 비참한 거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 건 자세히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너무 많이

열악했어요. 세계최고의 사격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가 상당히 좀 약했었습니다. 대표 선수들이 전부 들어가서 훈련을 할 수 없었어요. (적립회관)사대가 적으니까, 나눠서 들어가서 연습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장애인 지도에 대한 전문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이기 전에 제가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감독, 코치들은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분들은 다 일반인에서 오신 분들인데 전혀 사격행위, 어떤 스킬에 대해선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장애 상태에 따라 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선 무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감독, 코치를 믿기가 어렵죠. 자기에 맞지 않게끔, 그러니까 제 훈련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선수들을 보이지 않게 지도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한 시간에 제가 몰입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나보면 몰입하는, 집중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누가 와서 불러도 모를 정도의 그런 몰입 상황에서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중략)...88올림픽 때 우리 차영철 선수가 은메달을 땀죠. 그리고 나서 저는 권총 종목이었기 때문에 권총 점수들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점수 정도는 내가 여유 있게 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일반인에 대한 어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주 강했구요. 실제 대회, 저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으니까 작전을 저 나름대로 짰습니다. 세트별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고, 근데 참 운이 좋게 제 작전하고 그런 것이 거의 95%이상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가지고 그때 그 점수가 일반인들이 쏠 수 없었던 점수입니다. 그래서 일반부가 난리가 났어요. '야, 재는 저 점수 쏘는데 니들은 뭐하는 거냐.' 고 (하하하) 그때 아마 2등하고 20점 이상 차이 났었을 겁니다. (2017년 7월 27일 참여자 구술)

백재환 선수는 위의 2017년 7월 27일 구술채록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백재환 선수는 88서울패럴림픽에 사격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였다. 88서울올림픽 사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차영철 선수보다 월등한 성적으로 메달을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출전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받아온 각종 설움을 털어내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하는 것으로 당시 한국사회에 대한 참여자의 작은 몸부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도 끈뭇하게 합숙훈련에 임했고 장애관련 전문지도자의 부재로 참여자가 선수이면서 동시에 선수들의 훈련을 도와주는 지도자의 생활을 병행해야 했다. 그로써 인해 개인 연습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집중력이 생명인 사격의 특성은 참여자가 선수들의 훈련을 도와주면서 개인 훈련 시간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장점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참여자만 갖고 있는 탁월한 집중력과 훈련으로 88서울패럴림픽 당시 일반 선수들의 기록보다 높은 점수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었는데 대통령한테 장애인에게도 스포츠연금을 지불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대통령을 두 번 뵈는데 첫 번째 만나 뵈고, 세 번

인가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정당, 김대중 전 대통령님 쪽 각 야당 대표님들 다 만나 뵙고,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그 때 당시 "시행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 계속해서 발표가 안됐었어요, 그러다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을 만나는 헤드좌석에 앉았을 때 "약속하신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그때 바로 제 기억으로는 MBC, KBS 불러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발표했었던, 저한테는 남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 체육에 큰 획을 그은 연금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20만원, 금메달일 때 20만원, 은메달이 15만원인가 10만원인가 책정이 처음 됐었어요, 89년도부터 지급을 하게 됐었습니다. (2017년 7월 27일 참여자 구술)

위의 2017년 7월 27일 구술채록 내용을 통해 백재환 선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장애인 선수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일반운동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국가대표 선수연금을 장애인선수들에게도 지급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이 받는 비정기적 포상금이 정기적인 연금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일반운동 선수의 연금과 장애인의 연금 부분에서는 금액차이가 많았다.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진 운동선수연금은 장애인선수들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단지 메달획득 포상금으로 지급되었다. 이 부분을 참여자는 동일하게 적용시켜 달라고 요구 했고 이것이 관철되었으나 일반운동 선수와 장애인선수의 차별지급이 진행되었다. 이 부분이 2005년 장애인체육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부관심이 있게 되었고 2008년 운동선수연금에 대한 장애인선수와 일반운동 선수의 지원체계 통일화의 법적마련으로 2012년 런던패럴림픽 이후 동일하게 지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인체육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관심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2005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었다. 보훈처와 보건복지부 등 종목별 관심여부에 따라서 지원의 방식과 규모가 제각각이었던 종전과 달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은 장애인체육의 지원에 대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아울러 장애인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이천훈련원이 개원하였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장애인 국가대표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은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희망과 꿈, 그리고 각 종목에 대한 의지만으로 역경을 이겨 내야 했다면 현대화된 시설과 전문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면 국제무대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VI.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삶을 구술을 통해 조명하는 것이다. 구술참여자 다섯 명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장애인체육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해곤선수와 백재환 선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들어볼 수 있는 최경식 선수와 이흥구 선수 그리고 201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장애인체육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최광근 선수이다. 이들이 선택한 운동종목은 양궁, 탁구, 유도, 사격의 네 가지 종목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참여자들은 각각의 환경에서 장애를 얻게 되었다. 대부분 군복무 시절 부상으로 인한 장애를 갖게 되었고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여자 스스로 또는 주변인들의 권유로 각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고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자신의 삶에서 운동을 통하여 즐거움을 찾게 되었다.

이흥구 선수의 경우 군대에서 전역 한 후 교통사고로 요추부상으로 장애를 갖고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양궁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면서 세계신기록과 실업팀 창단, 실업팀 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삶을 살았다. 최경식 선수는 군복무시절 차량전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위한 보석가공훈련원에서 보게 된 88서울패럴림픽 당시 휠체어를 타고 탁구를 치던 외국선수를 보면서 탁구선수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탁구장을 찾아갔고 스탠딩선수들에게 탁구를 배우면서 국가대표와 실업팀 감독, 대한장애인탁구연맹 경기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는 장애의 과정과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메달을 획득하는 전 과정에 대하여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특유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해곤 선수는 군복무시절 훈련과정에서 목을 다치는 부상으로 전신마비의 장애를 받았고 전역 후 오랜 기간 이어진 병상생활에서 모우숙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만남은 그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재활치료의 개념이 없던 시절 양어머니와 양아들의 모자관계를 맺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참여자는 6번의 패럴림픽 참가와 동시에 금메달 7개와 다수의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장애인탁구의 발전을 이끌었다. 최광근 선수는 비장애인유도선수로 활동하면서 훈련도중 발생하는 부상으로 시각장애 2급의 장애판정으로 장애인유도선수로 활동하게 되었고 런던 패럴림픽과 리우패럴림픽에서 2연패를 달성하게 되었다. 소아마비1급 장애를 갖고 있던 백재환 선수는 10여 년 동안 일반사격선수로 활동하면서 각종 불이익을 몸소 경험했다. 88서울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선수로 전향한 참여자는 일반선수의 기록보다 우수한 점수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이후 장애인선수들의 복지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운동선수연금이 지급되도록 활동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자신의 특성과 자질에 맞게 훈련에 임했으며 결국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전환기와 함께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하였고, 그들의 노력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으며 대한민국 대표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세계무대로 진출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의 기억에서 과거 한국 장애인체육의 현실은 비참했다고 할 수 있다. 숙소의 환경과 훈련시설의 열악함 지원체계의 미비, 지도자의 인식부족 등은 과거 한국장애인체육의 현실이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참여자들은 각자의 꿈과 희망에 도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장애인국가대표선수의 꿈과 세계무대진출과 제패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셋째, 2005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이전, 장애인체육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은 상당히 열악했던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5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장애인체육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2009년 이천훈련원이 설립되면서 장애인국가대표의 훈련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참여자들이 느끼는 국민들의 무관심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한국장애인체육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출범과 이천훈련원의 개원은 장애인체육의 발전에 획기적인 주요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장애인체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체육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국민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도 과거보다 향상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욱 관심이 기대된다. 그것은 장애인국가대표선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선수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지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장애인 국가대표선수의 삶속에서 나타난 그들의 활동은 한국 장애인체육의 지나온 길을 돌아본 결과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은 그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느끼는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한국체육의 발전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는 체육인으로 그리고 각 가정과 직장에서 활력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계에서도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문제제기와 변화의 방향을 의미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현식 (1993).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김철영 (1987). **옛센스영한사전** 서울: 민중서림.  
 국사편찬위원회 (2004).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경기: 국사편찬위원회  
 신경림 외 (2003). **질적연구 용어사전**. 서울: 현문사.

2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1호)

- 윤택림 (2003).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서울: 역사비평사.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 이기호 (2008). 국가대표 장애인 양궁선수의 운동과 삶. 관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장성범, 하용용 (2017). 남다른 한 장애체육인의 삶 : 패럴림픽 역도금메달리스트 정금종의 삶. **한국체육사학회지 22(2)**, 39-52 .
-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서울: 도서출판 선인.
- 한국장애인식교육센터(www.aulim.org),
-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http://news.joins.com/article/14436294>)
- 중부일보 2014년 4월 13일자.
- 이홍구 구술, 2017년 7월 26일 인터뷰
- 백재환 구술, 2017년 7월 27일 인터뷰
- 최경식 구술, 2017년 7월 28일 인터뷰
- 최광근 구술, 2017년 8월 9일 인터뷰
- 이해곤 구술, 2017년 8월 24일 인터뷰

Special education through the oral presentation  
of Disabled national players

**Park, Ki-Dong**

Kangwon National Univ.

**Kwak, Nak-Hyu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Yun, Dae-Jung**

WooSuk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dictation of the participants who have lived the lives of the disabled national delegates, the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interest of each association, government and people. I could get the same conclusion. First, participants who were formerly non-disabled people suffered great distress and difficulties in their lives and encountered sports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m. Second, each sport I encountered in their lives changed their lives, overcoming themselves, and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Third, the interest of the associations, governments and citizens of each sport has been quite passive, but I feel that interest has been improved with the launch of the Disabled Sports Council recently. The development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is not only for non - disabled people but also for the disabled athletes.

**Key Words**

: Disabled nation representatives, Paralympics, Korea Paralympic Committee, Icheon Training Center

---

논문 접수: 2018. 02. 06 심사 시작: 2018. 02. 12 게재 확정: 2018. 02. 28